

# 서울시 “3년 내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로 성장시킬 것”

## 제1회 스마트라이프워크

스마트도시 서울 체험 가능  
전시관·시상식·포럼 등 구성  
내년부터 해외기업 참여 전망



스마트라이프워크(SLW) 홍보 포스터.

(서울시)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사람 중심의 동행·매력 가치와 철학이 담긴 첨단 기술 각축전이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10~12일 강남 코엑스에서 '제1회 스마트라이프워크(SLW)'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SLW는 전시회(Exhibition)와 시상식(Prize), 포럼·회의(Forum·Conference)가 결합된 종합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다. 시는 SLW를 3년 내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다.

올해 행사에서는 '첨단기술이 바꾸는 도시 생활의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 도시가 서울에 모여 기술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혁신 기술이 일상

에서 구현되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체험한다.

전시관은 첨단기술을 통해 변화한 미래 도시 일상을 체험하는 '쇼룸'과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업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코엑스의 1층 B2홀에 마련된 쇼룸에서는 ▲일상 속 로봇 ▲건강한 돌봄 ▲안전한 환경 ▲도시 속 습터 ▲주거의 변화 등 주

제별로 구현된 미래 도시공간의 라이프스타일 경험해볼 수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주요 대기업이 시와 협력해 하나의 쇼룸을 꾸밀 계획이다.

3층 C홀에는 약자동행기술, 모빌리티, 헬스케어·뷰티,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기업전시관'을 만든다. 시정 철

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신기술 전시에 공간의 3분의 1을 할애할 예정이다.

시는 SLW에서 도시와 기업 간 수요를 일대일로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SLW에 참가하는 해외 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벌인 뒤 솔루션을 가진 국내기업을 미리 모집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은 행사 당일 해외도시 시장을 직접 대면해 맞춤형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다양한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도 운영한다. 해외도시 시장이 참여하는 'Mayors 포럼', 기술 리더를 위한 '글로벌 CDO(Chief Digital Officer) 포럼', '스마트도시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스마트도시 성과를 나눈다.

제2회 서울 스마트도시상 시상식도 열린다. 이 상은 서울시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와 함께 약자와의 동행 비전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자 2022년 9월 제정한 상이다. 시는 SLW 메인

무대에서 국내의 도시 시장을 포함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람중심·기술혁신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한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약 2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국내 기업과 해외 도시 간 수주 계약 목표치를 묻는 말에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첫 행사인만큼 계약까지 성사된다는 목표를 갖는 게 무리가 될 수 있어 일단은 기업들과 도시의 대면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주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SLW를 한국판 CES로 부르기에 글로벌 우수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박 국장은 "올해 첫 행사는 서울시가 가진 자원 하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기업이 참가해 우리의 기술력 수준을 해외도시에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한계점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해외 기업의 참여를 열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대학·산림청 등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 10개 기관과 '맞손' 56개 프로그램으로 현장 지원 강화  
서경대·서울교대·숙명여대 등 선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 구로구 고척초등학교를 방문해 초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소재 대학, 지역 사회 전문기관, 공공 기관 등 총 10개 기관과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번 협력사업은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 연계 사업을 위해 참여 대학 공모 과정을 거쳐 서경대, 서울교대, 숙명여대 등 3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각 대학은 예술, 체육, 과학, 기초학력 등 대학별로 특화된 33개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124명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 또 한 공모를 통해 5개 전문기관을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 ▲드론 ▲전기자동차 ▲세계 문화

▲전통예술 ▲심리·정서 ▲스포츠 등 분야서 5개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 100명을 지원한다.

산림청·산림복지진흥원의 협조 및 지원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연계 지원 사업'은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놀이 ▲공예 중심의 낙엽아트메이커 ▲목공 체험 프로그램 등 18가지 숲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170명 지원을 통해 환경·생태 인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각 대학 및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희망 수요를 파악해 지원학교에 프로그램을 매칭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hj@

# 인천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열어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 진행도  
이달 말까지 '북한인권 체험전'

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광역시시는 지난 13일 선학체육관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통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를 향한 용기를 기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시의회 의장, 한도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지역회의 부의장 등 주요 내빈과 북한이탈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는 축하공연, 기념식, 체육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는 ▲탈북상황을 가정한 방탈출게임 ▲야외 북한인권 전시관 ▲탈북예술인의 라이브 음악 및 페인팅 공연 등 '북한이탈주민의 날'과 연계한 부대행사 '통일문화 북한인권체험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미래의 행복한 삶을 개척하고자 고향을 떠나 인천에 정착을 결심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들의 용기가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약 3천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검진, 심리상담, 우수정착자 제주도 문화체험,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김민석 기자 kmmmm112@

# 서울시교육청, 국·수·영·AI코딩 집중지원

KT와 '기초탄탄 랜선야학'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보충과 인공지능(AI) 코딩교육 집중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부터 KT와 함께 '기초탄탄 랜선야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KT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시간 쉼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탄탄 랜선야학'을 실시한다.

'기초탄탄 랜선야학'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인 '책임교육학년제'와 '전환기 채용학기제' 일환으로 운영된다.

책임교육학년제란,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 3대 핵심 소양 집중교육이다. 전환기 채용학기제는 학교급별로 졸업 시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추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초6과 중3 학생을 집중 지원한다.

'기초탄탄 랜선야학'은 대학생 멘토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1대2 또는 1대3으로 매칭해 국어, 수학, 영어 위주 교과보충과 AI 코딩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학습지도 프로그램이다. AI 코딩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KT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시험(AICE)에 참여해 교육 효과를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3 | 해질 / 19:53

7월 16일 (화)  
음력 : 6월 11일

수도권 날씨  
24~3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22/30, 동두천 22/30, 가평 21/30, 파주 23/29, 서울 24/30, 양평 22/29, 인천 24/28, 수원 24/29, 용인 24/29, 평택 23/29, 백령도 21/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트럼프 피격' 단독 범행?...총격 동기, 추가 계획 등 주요 의문점 남아  
▲ 바이든 "트럼프 심각하게 안 다쳐 감사...총격 동기 아직 몰라" /사진 뉴시스

▲ 美공화 통합 국면?...'미운털' 헤일리로 연사로  
▲ 중국 3중대회 개막...시진핑 "개혁 전면 심화" 보고



▲ 일본인 57% "기시다 총리, 9월 자민총재 선거서 출마 말아야" /사진 뉴시스  
▲ EU, 순회의장국 헝가리 주재 회의 거부... '중립주진' 총리 탕